

말레이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330천km ²	GDP	2,378억 달러 (2010년)
인구	28.25백만 명 (2010년)	1인당 GDP	8,418달러 (2010년)
정치체제	연방형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Ringgit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3.22 (2010년 평균)

- 말레이반도의 남부를 차지하는 서말레이시아(구 말라야연방)와 보르네오섬 북서부의 사라와크(Sarawak) 및 사바(Sabah)로 이루어지는 동말레이시아(북칼리만탄)로 구성되며, 서말레이시아는 태국, 싱가포르와 국경을 이루고 동말레이시아는 남쪽으로 인도네시아령 보르네오섬과 국경을 이룸.
- 1957년 8월 영국의 지배에서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한 후 1963년 사라와크, 사바와 싱가포르(1965년 분리 독립) 등 영국령이 합류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13개 주와 3개의 연방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헌군주제로 국왕은 9개의 주의 통치자인 술탄(Sultan) 중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되어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권리와 군대 최고 사령관으로 통솔권을 가지며, 실질적인 행정권은 의회를 책임지는 내각에 있으며 내각의 수장인 총리는 하원(Dewan Rakyat) 다수당의 당수가 맡음.
- 말레이계(53%), 중국계(26%), 인도계(8%)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며, 원유, 천연가스, 주석, 고무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공업화에 성공한 중소득국으로 향후 2020년까지 고소득국로의 진입을 위해 최근 신경제모델과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6.5	4.7	-1.7	7.2	5.1
재정수지 / GDP	-3.2	-4.8	-7.0	-5.7	-5.6
소비자물가상승률	2.0	5.4	0.6	1.7	3.3

자료: IMF, EIU.

□ 빠른 경기 회복세 시현

- 말레이시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6%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수출 감소, 민간 소비 위축 및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08년 4.7%로 하락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이 급감하고 투자 및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 아시아 외환위기로 1998년 -7.4%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냄.
-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미국, 유럽국 등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민간 소비가 크게 회복되는 한편 산업 생산 증가로 인한 재고 확충(inventory restocking)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1년에는 재고 확충 효과가 감소하고 세계 경기가 다소 둔화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양호한 고용 시장(2010년 기준 실업률 3.1%), 주요 수출품인 팜오일, 석유, 천연가스 등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소득 확대 등을 기반으로 민간소비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가계 및 기업대출 조건 완화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또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 증가세로 전환

- 2008년 상반기 정부의 연료비 보조금 삭감, 전기세 인상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7월 및 8월 8.5%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 영향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와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면서 연평균 5.4%를 기록함.
 - 2009년에는 국제상품가격 하락과 국내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가 6월부터 11월까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상태를 보였으나 12월 회복세를 나타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1%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를 기록함.
 -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상품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식료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대비 링깃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압력 완화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를 기록함.
- * 미달러 대비 말레이시아 링깃 동향(평균) : 3.3358('08) → 3.5203('09. 3분기) → 3.4016('09. 4분기) → 3.3721('10. 1분기) → 3.2414('10. 2분기) → 3.1562('10. 3분기) → 3.1146('10. 4분기) → 3.0473('11. 1분기)
- 2011년에는 국제 유가 등 국제상품가격 및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정부의 연료비 보조금 축소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3%대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규모 축소

-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2000년 GDP 대비 5.5%에서 2007년 3.2%까지 축소되었으나 경기 침체로 정부가 2008년 11월과 2009년 3월 2차에 걸쳐 670억 링깃(약 196억 달러)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2008년과 2009년 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GDP 대비 4.8% 및 7%로 확대되었음.
- 2010년에는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고 2010년 7월 연료비와 설탕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재정지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7%로 다소 축소되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보조금 체계 합리화를 준비중이나 2012년 조기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민감한 사안이어서 단기간 내에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재정지출을 대폭 축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지속적인 재정적자에 따른 좁은 재정 운용폭

- 말레이시아는 고무, 석유 등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관광 등 서비스업으로 경제구조 다각화에 성공해 왔으나 중앙정부의 세수입은 여전히 석유 관련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임.(2009년 기준 전체 세수의 약 37% 규모)
- 반면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연료, 식료품 등에 대한 빈곤층 앞 보조금 지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기록해 왔음.
- 이로 인해 경제 위기시 적극적인 정책 운용에 큰 부담이 되는 등 정부의 운용폭이 좁아짐에 따라 조세 개편과 보조금 합리화를 대안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높은 무역의존도

- 말레이시아는 협소한 내수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한 결과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2010년 기준 147%에 달하는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특히 전기, 전자제품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의 40%, 제조업 부문 수출의 60%에 달해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임.
- 또한 전기, 전자산업 등의 부문에서 재료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커 수출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수입규모도 동반 증가하는 성향을 보임.

나. 성장 잠재력

□ 양호한 인프라 수준

- 말레이시아 정부의 일관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정책으로 동남아 주변국에 비해 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에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환경이 양호함.
- World Economic Forum의 2010/11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인프라 부분에 있어 전체 139개국 중 30위를 차지하였음.

□ 풍부한 자원

- 말레이시아는 천연가스, 원유, 팜오일, 주석, 고무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팜오일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 수출국(40% 이상)이자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생산국으로, 팜오일이 최근 화장품 및 바이오디젤의 주 원료로 각광받으면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음.
- 증시에 상장된 팜오일 관련 회사가 30여개에 달하고 생활용품, 의약품 등 전후방 연관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국가가 핵심산업으로 지정하고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에 노력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부상함.

다. 정책성과

□ 계획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달성

- 말레이시아는 1970~1990년 신경제정책(NEP), 1991~2000년 국가개발정책(NDP), 2001~2010년 국가비전정책(NVP) 등 정부 주도의 장기 경제개발 정책을 통해 고무, 주석 등 1차 자원 수출과 농업 생산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전기, 전자산업 외에도 라텍스, 타이어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련 제조업 산업을 발달시키는 산업 다각화에 성공,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음.

-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10차 개발계획(10th Malaysia Plan)과 함께 정부변화프로그램(GTP) 및 경제변화프로그램(ETP) 등 신경제모델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중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10차 계획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627억 링깃 규모의 민관협력(PPP)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 도소매업, 운송 및 통신 관련 분야 서비스 분야 발전을 중심으로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변화 프로그램(ETP)은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팜오일 산업, 금융서비스, 도소매업, 관광, 정보통신산업, 교육, 전기전자, 비즈니스 서비스, 민간의료서비스 산업, 농업, 쿠알라룸푸르 세계 도시화 등 12가지 분야(National Key Economic Areas: NKEA)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을 2009년 기준 6,700 달러에서 2020년 15,000달러로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용

- 경기가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2010년 빠른 회복세로 전환되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아시아 국가중 인도와 더불어 처음으로 2010년 3월부터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2010년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7%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2008년 하반기 경기가 둔화세로 전환되자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3.5%에서 최저치인 2%로 하향 조정한 후 동결하였고, 빠른 경기 회복세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5월 및 7월 각각 25bp씩 상향 조정하였음.
-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자 5월 기준금리를 3%로 인상하였음.

3. 대외거래

□ 상품수지 흑자 소폭 증가

- 말레이시아는 고무, 팜오일, 천연가스, 원유 등 1차 자원 수출 외에도 1970년대 이후 전자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전자제

품 관련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수출 품목 다양화를 통해 상품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옴.

- 2008년에는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전자제품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팜오일, 석유, 천연가스 등 1차 자원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35.9% 증가한 5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 등의 전자제품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국제상품가격 하락에 따라 원자재 수출 또한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402억 달러로 감소함.
- 2010년 중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전자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국제상품 가격 회복에 따라 1차 자원 수출액도 증가하는 등 수출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나 전자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수입 가격도 상승하여 상품수지 흑자는 소폭 증가에 그침.
- 2011년에는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싱가포르 등 타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말레이시아는 소득수지와 이전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당폭의 상품수지 흑자 지속으로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해 옴.
- 2008년에는 소득수지 및 이전수지 적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30.7% 증가한 38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 축소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18억 달러로 감소함.
- 2010년에는 교역 확대에 따른 화물 운임비용 증가 등으로 서비스 지급 비용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수지 흑자 규모가 2009년 13억 달러에서 2010년 3억 달러로 축소되고, 소득수지와 이전수지 적자가 각각 전년 대비 36억 달러 및 12억 달러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57억 달러 감소한 261억 달러를 기록함.
- 2011년에는 상품수지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 GDP 대비 11%에서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증가

-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2010년 중 말레이시아로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1,023억 달러를 기록, 2007년 1,0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함.
- 그러나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액 또한 크게 증가하여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09년말 6.95개월에서 2010년말 5.89개월로 감소함.

* 순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추이 : △246억 달러('08) → 5억 달러('09) → 139억 달러('10년)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추이 : 74억 달러('08) → 14억 달러('09) → 86억 달러('10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 상 수 지	29,770	38,914	31,801	26,108	27,217
경 상 수 지 / GDP	15.9	17.5	16.5	11.0	9.6
상 품 수 지	37,727	51,261	40,253	40,438	41,577
수 출	176,220	199,733	157,655	197,010	227,701
수 입	138,493	148,472	117,402	156,572	186,124
외 환 보 유 액	100,635	90,605	92,865	102,298	-
총 외 채 잔 액	61,566	66,181	66,390	73,652	85,201
총외채잔액/GDP	33.0	29.8	34.4	31.0	30.2
D S R	4.8	3.6	5.6	7.4	3.4

자료: IFS,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08년 총선 이후 정국 안정 회복

- 통합말레이기구(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UMNO)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은 1957년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3월 12대 총선에서 UMNO 중심의 14개 정당으로 구성된 BN이 물가 상승, 정부 여당 내 부패 문제, 중국 및 인도계 소수 민족의 불만 등의 이유로 하원 222개 의석 중 140석을 차지함에 따라 1969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반면 국민정의당(PKR), 민주행동당(DAP), 이슬람말레이시아당(PAS) 등 3개 주요 야당 연합(PR)은 BN을 상대로 협력하면서 총 82석을 차지하며 약진함.
- 2003년 10월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bin Mohamad) 총리로부터 총리직과 UMNO 총재직을 승계한 압둘라 바다위(Abdullah bin Haji Ahmad Badawi) 총리가 임기가 2013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의 과반수 확보 실패로 당내 퇴진 압력을 받고 2009년 4월 사임하였으며, 나지브 라자크(Najib Tun Razak) 부총리가 총리직을 승계한 후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용중임.

□ 2012년 조기 총선 실시가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의 선거법 개혁 요구

- 전통적으로 BN은 총선을 정기 임기보다 1년여 넘게 남기고 조기 총선을 치러 왔으며, 2013년 예정된 총선의 경우도 2012년 조기 실시가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말레이시아사회당(PSM)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선거운동 기간 연장, 대표 행위 등 부정 선거 방지 등을 위해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집회를 계획함에 따라 정부와 갈등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조기 총선 실시 이전 여야간 잦은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나지브 총리의 경제개혁에 대한 노력과 국민정의당(PKR)에서 탈퇴 후 새로 설립한 국민복지당(KITA) 등에 따른 주요 야당연합(PR) 세력 약화로 조기 총선시에도 BN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불안 및 대규모 소요 가능성은 낮음

- 말레이계는 정치권을 주도하고, 중국계는 상권 중심으로 활동하는 등 민족간 역할 분담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엄격한 집회 및 시위 통제 등으로 단기간 내 급격한 대규모 소요로 인한 사회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민족간 갈등요소 상존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53%), 중국계(26%), 인도계(8%)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1969년 부의 편중으로 인해 말레이계와 중국계간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1970년대부터 부모 중 1인 이상이 말레이시아 국적을 지닌 말레이 회교도(Bumiputra)를 정책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 부미푸트라(Bumiputra)의 기업 필수 자산지분을 30%로 확대, 공공기관내 채용, 장학금 지원 등
- 동 정책으로 말레이계의 소득과 경제적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불만으로 중국계가 싱가포르 등으로 이주하는 등 소수계의 불만이 큰 상황임. 현 정부는 특히 2020년까지 고소득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중국계 자본이 필요한 상황으로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나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말레이계의 반발로 총선 이전에 정책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국제관계

□ 비동맹, 온건중립 대외관계 추구

- 말레이시아는 ASEAN을 중심으로 지역협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슬람회의기구(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를 통해 온건 이슬람국가로 활동하며, 비동맹운동회의(Non-Aligned Movement: NAM)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비동맹노선을 확고히 견지해 왔음.
- 또한 레바논, 보스니아, 앙골라,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등에 UN 평화유지군 파병에 동참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임.

□ 미국과 협력 관계 유지

- 미국은 2010년 기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의 4대 교역국(10% 비중)이며, 최대 투자국(직접투자 유입액의 17%)으로 주요한 경제 파트너임.

- 미국의 대외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 집권 시기 (1981~2003) 동안에는 말레이시아와 미국간 관계는 다소 소원했으나, 마하티르 총리 이후 말레이시아가 반테러 활동과 지역안정에 의견을 같이 하는 등 관계가 개선된 이후 경제, 정치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FTA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 추진

- 말레이시아는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본(2005년), 칠레(2006년), 파키스탄(2007년), 뉴질랜드(2009년), 인도(2010년)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터키, 미국, EU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으로, 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관리 양호

- 2010년 말 기준으로는 총외채 규모는 736억 달러이며 외환보유액 1,023억 달러로 그동안 말레이시아의 총외채 규모는 외환보유액 범위 내로 관리되어 왔음.
- 또한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에 힘입어 총외채의 90% 이상이 링깃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외 여건에 따른 환율 및 외환보유액 변동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현황

- S&P, Moody's, Fitch 등 주요 신용도 평가기관이 모두 말레이시아에 대해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1 (2011. 7.)	B1(Stable) (2008. 4.)
OECD	2등급 (2011. 3.)	2등급 (2010. 4.)
S&P	A-(Positive) (2008. 5.)	A-(Stable) (2007. 7.)
Moody's	A3(Stable) (2011. 4.)	A3(Stable) (2004. 12.)
Fitch	A-(Stable) (2010. 7.)	A-(Stable) (2009. 6.)

□ 주요ECA의지원태도

- 미국수은: 전액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영국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Euler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최고 부보율 적용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0년 2월 23일(북한과는 1973년 7월 2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2년), 문화협정(1965년), 항공협정(1967년), 이종과세방지협정(1983년), 사증면제협정(1983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85년), 투자보장협정(1988년), 해운협정(1988년), 자원협력양해각서(1995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인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대 인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5,794,491	4,324,822	6,114,823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관
수 입	9,909,105	7,574,059	9,530,964	천연가스, 반도체, 석유제품
합 계	15,703,596	11,898,881	15,645,787	

자료: 한국무역협회.

-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특히 경제협력 측면에서 양국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음.

- 마하티르 전 총리는 1983년부터 한국 및 일본과 인적자원 개발 중심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고자 기술연수생, 중견공무원 등을 파견하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한 바 있음.
-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은 천연가스, 원유, 목재 등 원자재 수입과 반도체, 컴퓨터 부품 등 전자제품 부품이 주를 이루어 교역관계에 있어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와의 교역규모는 2007년 141억 달러, 2008년 157억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19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2010년에는 수출이 61억 달러, 수입이 95억 달러로 총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31.5% 증가한 156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판 등임.
-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실적은 2011년 3월말 현재 신규법인 수 575건, 29.5억 달러(투자누계 기준)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64.6%), 광업(12.5%)이며, 제조업의 경우 주로 석유화학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1차 금속 제조업 등에 투자해 옴.

V. 종합 의견

- 2010년 중 말레이시아는 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민간 소비 회복과 재고 확충 효과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 중 디플레이션 상태를 보였던 물가도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에 따라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2009년 GDP 대비 7%로 확대되었으나 2010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재정지출 규모도 축소되어 적자폭은 5.7%로 하락하였음.
- 상품수지 흑자로 소득수지와 이전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및 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1,02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말레이시아 경제는 재정적자 지속과 높은 무역의존도 등의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 추진에 따라 인프라

수준이 우수하며, 팜오일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관련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 추세하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큼.

- 2008년 총선에서 국민전선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정국이 다소 혼란을 겪었으나 2009년 4월 나지브 라자크 부총리가 총리직을 승계 받은 후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용중임.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회교도인 부미푸트라를 정책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소수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나 단기간 내 급격한 대규모 소요로 인한 사회불안 발생 가능성은 낮음.
- 총외채 규모는 외환보유액 범위 내로 유지되고 있으며, D.S.R도 10% 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책임조사역 이 진 경 (☎02-3779-5704)
E-mail: jinkyung22@koreaexim.go.kr